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주년 기념식

결과 보고서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



HWPL



IWPG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 기념식

결과 보고서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



목차

행사 결과 보고서 소개	2
컨셉노트	4
축전	6
기념사 HWPL 대표	9
IWPG 대표	15
IPYG 부장	18
경과보고	21
발제 수리남에서의 DPCW 지지	26
종교 평화 제도화의 구심점 : 종교연합사무실	28
국가시민교육과정 내 HWPL 평화교육을 통한 도미니카 평화 문화 확산	32
국가별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 기념식 행사 목록	34

행사 결과 보고서 소개

본 결과보고서는 2022년 9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8주년 기념식'의 핵심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9월 18일은 지난 2014년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세계 평화를 위한 전지구적 협력을 약속했던 평화 만국회의를 기념하고 해마다 평화사업의 성과 및 미래방향을 논의하는 날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HWPL은 평화를 제도화의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도적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라는 주제로 지구촌이 공생, 공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평화를 각 사회의 규범, 문화, 법 등으로 제도화하는 여러 행동계획과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모두 국제법 전문가들의 참여로 공표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에 담긴 평화의 주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리누스 비 수리남 국회의장은 평화를 제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해 정부가 평화, 안보, 평등의 가치를 증진하고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들어 가는 대의민주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의 가장 전통적인 중요한 행위자로서 국가가 평화의 기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입법의 주체이자 시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가 평화의 기초가 되는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해야 할 당위성을 가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옥타비아 알프레드 도미니카 교육부 장관은 시민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평화 의식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으로서 평화교육의 도입을 설명하였습니다. HWPL이 제작한 12과에 이르는 평화교육 교재는 전 세계 여러 교육기관에서 평화교육 시행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교육을 통해 평화가 대중적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 개발은 평화를 각 사회에서 문화로 확립하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헨드라 다스 필리핀 스리 스리 라다 마드하바 만디르 사원 대표는 평화에 기여하는 종교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종교간 소통의 제도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신앙적 특성을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종교 평화 아카데미의 시행 사례가 설명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종교적 오해에 기초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국제교류 및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것이 평화의 기초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IPYG 정영민 부장은 평화를 위한 국제적 행동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습

니다. IPYG가 주도하는 청년주권평화워크숍(YEPW)과 청년주권평화교실(YEPC) 프로그램은 세계 청년들이 연대하여 평화를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청년 네트워크를 제도로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HWPL 이만희 대표는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사명이 지구촌 모두에게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지구촌 평화가족이라 지칭하는 대상은 평화를 후대에 유산으로 남기는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갈 주역, 세계의 만민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적 접근을 통한 제도화는 세계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컨셉노트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8주년 기념식

제도적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

1. 소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8주년 기념식’이 2022년 9월 18일에 개최된다. 본 행사는 2014년 9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 모인 각국의 정치, 종교, 여성, 청년, 언론 등 사회 대표들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맺은 협약을 기념한다. 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9월 18일마다 협약의 주체들이 계획 및 실행한 다채로운 평화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 배경

인류의 안전을 위협해온 폭력적 갈등과 더불어 팬데믹까지 겹치며 인류의 미래는 더욱 예측할 수 없어졌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및 물가상승을 포함한 경제적 불안감 증대, 기후 변화 대응 실패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공존 가능성은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HWPL은 위와 같은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도적 평화를 제안해왔다. 상호존중, 조화, 협력, 상생 등 평화의 가치관을 각 사회의 규범과 문화, 국내법 및 국제법 등의 제도로 확립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 제도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의 원칙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에 담겨있다.

DPCW는 공동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 즉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DPCW의 10조 38항은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전력의 점진적 축소와 생활 도구로의 전환, 종교 및 민족 정체성에 의한 존중과 갈등 해결, 평화 문화의 전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DPCW는 제도적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다. 국제기구로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시민 계층까지 지구촌의 모든 행위자를 평화 제도화의 주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갈등행위 중단을 위한 임시적 수단을 넘어, HWPL은 모든 개인과 집단의 행동 양식이 되는 법, 가치관, 문화로 발전시키는 제도적 평화로 나아가고 있다. 질병, 전쟁, 기후, 빈곤 등 무너진 일상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

하는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음을 전 세계는 목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1년간 HWPL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토대를 세우는 것 곧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본 행사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HWPL의 각종 사업과 그 성과가 소개 될 것이다.

3. 내용과 결과

HWPL은 지난 1년 간 전세계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HWPL은 지구촌이 겪고 있는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공동의지가 꺾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 인권 증진과 약자에 대한 보호, 갈등의 평화적 해결, 평화문화 전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본 행사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MOU, MOA 체결
- 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 논의 확대
- 갈등과 폭력의 현상에 대한 조명과 보편적 인권의식의 확산을 위한 인권웹이나 및 언론활동
- 갈등의 예방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전세계 종교 경서비교 토론회 정착
-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글로벌 청년, 여성 협력 플랫폼 구축
- 공존과 조화의 평화문화 전파를 위한 지역 기반 활동의 확대

현재의 지구촌은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갖가지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당면 과제들은 개별 국가의 힘이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HWPL은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동참과 협력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임을 제시하고 있다. HWPL은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등 지구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대하고 단결하면서 광범위한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에 관한 청사진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달성에 기여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축전



펠릭스 울로아
엘살바도르 부통령

저는 엘살바도르의 부통령 펠릭스 울로아입니다. 온 세계에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엘살바도르에서 평화의 가족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엘살바도르는 늘 평화를 갈망해왔고 특히 중미에서 평화는 난제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화의 문화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HWPL과 이 대표님 그리고 DPCW를 지지합니다. 이 대표님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 활동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DPCW가 유엔에 상정되고 이 평화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촉구할 것입니다. 모든 평화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비센테 폭스
멕시코 전 대통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멕시코 대통령 비센테 폭스입니다. 저는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만희 대표님의 위대한 세계적인 활동에 동참하고

자 합니다. HWPL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조직이고 현재 멕시코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LA와 가까워 부통령을 비롯한 미주 전역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평화를 향한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도서관인 센트로 폭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평화 활동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도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DPCW를 유엔에 상정하고 국제법으로 제정하려는 HPWL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세계평화를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일하면 세계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대통령 비센테 폭스가 응원합니다. 브라보!



이사투우 투레이
감비아 전 부통령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 여러 단체와 HWPL 9·18 평화 만국회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 전합니다. 저는 감비

아의 전 부통령이자 감비아전통관행위원회 전무이사인 이사투우 투레이입니다. 먼저 본 행사를 주최하신 HWPL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정, 직장, 가족 등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평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발전 목표와 염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 문화와 평화적 공존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를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은 지속적이며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힘이 되어주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서적, 사회적 교정 기능의 발달로 안정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을 연구결과들이 뒷받침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직 평화를 통해서만 전쟁과 환경 문제, 기후 변화와 빈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 실현을 통해 인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 평화 문화를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사 혼티베로스
필리핀 상원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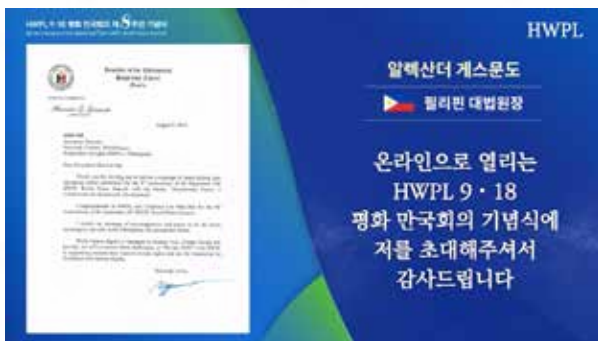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한국 인사말이 “평안하세요.”라는

의미라는 게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먼저 살아 숨 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HWPL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 분쟁을 멈추기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 법, 정책, 문화 속에 평화를 제도화하려는 여러분

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일해온 평화 운동가로서,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수행하는 모든 역할에서 적극적인 비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보며 저는 여러분과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큰 시험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차별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보건 문제와 경제 문제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세계적인 연대와 이상적인 원칙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평화를 위해 힘써주는 HWPL과 같은 단체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지구촌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바랍니다.



알렉산더 게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다가오는 9월 18일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열리는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HWPL과 이만희 대표님께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필리핀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평화의 사자들에게 평화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질병, 전쟁, 기후 변화, 빈곤 문제들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정신을 토대로 HWPL과 함께 인권 개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기반을 다져 이 난관을 극복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게스문도 올림

기념사



이만희

HWPL 대표

네,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HWPL의 이만희입니다. 그간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세상은 코로나로 인한 대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호하시는 우리 평화 가족들에게는 평화가 항시 깃들어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입니다. 바로 평화 말입니다. 유엔이 창조된 것은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이 지구촌은 그날 그 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해서 우리 평화 가족들은 전쟁 없는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높고 낮은 우리 각국 가족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우리 이 국제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 국제법을 (다시) 제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논에 의해서 우리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들을 우리가 창설하였죠. 해서 국제법 제정 위원들은 국제법 제정(을 위해) 이것을 만들었는데 (DPCW) 10조 38항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는 온 세계에 다 알렸던 것입니다. 해서 지구촌의 만백성들은 이 국제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유엔이 평화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평화를 위해서 이사국 다섯 개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다섯 개 나라 중에 하나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자기 사명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해서 이 시간 러시아의 모든 인사들은 오늘 이 날을 기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대해서 즉각 중지해주길 바랍니다. 중지해야 합니다!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후대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하니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만나서 대화로써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온 지구촌 평화 가족들은 하나같이 이 전쟁 하나 끝나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 들었으니 바로 끝내주십시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또 죽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니 이 전쟁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국 지도자 여러분, 이 사람 서른 한 바퀴나 지구촌을 돌았어요. 그때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이 지구촌을 평화의 세계로 이루어가자고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장들도 대법원장들도 다 서명했습니다. 제가 그 서명된 책자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야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이틀 이 지구촌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다 지키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DPCW를) 국제법 제정하고 이제는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되죠.

여러분께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그 나라는 1억 2천만이나 되는 그런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전쟁을 해왔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말입니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12만 명이 죽었죠. 그러한 전쟁 중에 우리 HWPL은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정신이었어요. 무엇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합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쟁하지 말자고요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리고는 서명을 했죠. 그리고 이분들이 저에게 갖다 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2장에 기록돼 있는 모든 전쟁을 중지하고 창과 총 이런 것을 녹여서 추수하는 낫을 만든다는 말이 기록돼 있죠. 그 말 그대로 무기로 녹여 낫을 만들어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분쟁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고 두 지도자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함께 평화 일할 것을 약속했고 분쟁은 다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필리핀 나라의 현재 평화 기념비가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곳곳에서 평화의 기념비가 잔뜩 서 있어요. 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 일입니까? 이것은 후대에게 아주 크나큰 선물일 것입니다. 돈을 준다 한들 그들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평화가 이들에게는 자기네들의 만족일 것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민족끼리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동아 전쟁 때에 어느 나라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 대법원장 모임 자리에 이 사람이 한두 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인

권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동아 전쟁 때에 어느 나라에 속해 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테 우리나라 허리를 잘랐습니다. 남의 나라 허리를 잘랐고 이 동쪽끼리 비극의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쟁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나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통째로 다 가지고자 우리나라 허리를 잘랐고 또 허리를 자르고 또 모자라서 전쟁까지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세계 각국 돌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으면 깃밟히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사자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천지간의 독립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평화를 마다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는 너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이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먹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 한데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서른 한 바퀴나 돌았어요. 할 일 없어서 이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각국의 대통령들, 대법원장들, 국회의장들, 대학 총장들 하나같이 다 평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서명을 다 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 국제법 위원들이 알고 그거를 다 기록했어요. 국제법 제정 위원들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유엔에 이제 제출될 것이고 유엔에서는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유엔의 사람들도 다 사람입니다. 같은. 같은 마음이에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유엔에 수차례 가서 말을 들어봤습니다. 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제정된 국제법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지켜야 하겠고 거기에 기록은 살상 무기를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살상 무기, 사람 죽이는 무기, 이것을 다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라고 침공해서 자기 소유를 만들어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자기 나라는 자기 주권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구촌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어떤 나라는 약국이 없습니다. 또 병원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아프고 이런 것이 병이 드는 일이 없어서 없을까요?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런 거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촌에 태어나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또 이 사람

들이 부족함이 있으면 도와줘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화 가족들은 다 함께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평화 국제법 DPCW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제법 제정을 위해 DPCW를 UN에다 꼭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럼 유엔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투표를 하겠죠. 오케이 하면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들이 본래 21명으로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이 하나의 준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하질 않겠습니까. 끝을 봐야 합니다. 이 지구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법원장, 국회의장 또 대학 총장 이분들을 각 나라 각 집마다 빠짐없이 이 사람은 만났어요. 그리고 각 단체장, 각 언론 보도진들 다 만났습니다. 해서 우리 이 지구촌의 모든 각국 지도자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자문위원으로 추대했죠? 그리고 언론 또 각 단체장들은 홍보대사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더라면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만국회의 때 오신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만민 앞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의 책도 하나이고 하니 종교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될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이루자는 것에 뜻을 모아 우리는 모든 단체장들은 이 일에 대한 촉구하는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죠. 참말이라면 완성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짐승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구촌은 원치 않는 코로나가 와 가지고 각 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이럴수록 우리 같은 지구촌에 살면서 같은 이웃이고 같은 형제입니다. 도와주고 해서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듭시다. 누가 좋은 세상 만들어 여기 있다, 하면서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좋은 세상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질 않겠습니까?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HWPL 이 본부에서는 자나 깨나 여러분에게 편지 보낼 것이고 여러분은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 일에 대해서 일을 해오고 있고 각 대학에도 우리가 교재를 보내줘서, 평화 교재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죠. 우리는 중단 없습니다.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촌에서 자기 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분들은 이 평화의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사는 세상,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에서 평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손들의 장래가 평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함에도 짐승 아닌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공연히 알면서도 밤낮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안 됩니다

오늘 HWPL 9·18 이 만국회의 8주년을 기해서 러시아의 대통령은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요. 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이 지구촌에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촌을 창조하신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했으니 때가 때인 만큼 러시아의 대통령도 자기 나라 보다 중한 것이 자기 목숨이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힘이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에요. 하나님도 듣고 세상의 만물들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단 없이 우리가 진행되어 평화 세계 함께 이루도록 합시다. 또 우리 종교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많아가지고 너 옳다 내 옳다, 잘한다 못한다 이리 서로 싸움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한다면 저 불신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서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것인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좋은 것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종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는 대화로, 대화로 어느 것이 나은지 대화를 해서 종교도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종교가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래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합니다. 꼭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각국의 각 종교지도자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같이 말한 줄 압니까? 만국회의, 9·18 평화 만국회의 그날, 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만민 앞에서 약속한 것 기억하시죠? 종교가 하나 되겠다는 것, 그것 말입니다. 평화도 종교도 하나 되겠다는 걸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대화로써 우리 종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날 동안에, 많은 날 동안에 하시(何時)라도 옳은 일이라면 이리 해왔습니다. 또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은 알려왔어요.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삶을 두고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삶을 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리해야지요. 우리 한국에 있는 HWPL 본부에서는 여러 사람이 지금 작업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편지라도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있음을 저 만민에게도 알려,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날 이날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이날 여러분에게 한 말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을 이뤄야

되지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저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뤄야죠. 왜 좋은 것을 안 이뤄요. 좋은 일이라면은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부탁을 해서라도 하늘의 힘을 빌려서라도 좋은 것은 꼭 하고 만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종교도 정치도 모든 것이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쟁이나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전하는 편지나 자주 왕래하면서 우리가 세계평화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완성의 그날까지 함께 뛰도록 합시다. 함께 말입니다. 꼭 그래야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일편단심 변하지 않았습시다. 오직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구촌에서 모든 각국 지도자도 제가 만난 분들은 저를 압니다. 국회의장들도 저를 압니다. 우리 태평양 각 나라 이 사람들이 호주에서 만나서 모두 다 하나가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프리카 대륙, 그게 55개 나라 각국 국회의장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함께 이루자는 것 말입니다. 완성하자는 말 말입니다. 그랬으니 어찌 이 사람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니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늘에 부탁해서라도 이거 완성을 해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이점 여러분 아시고 자주 편지해주십시오. 저도 자주 편지하겠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항시 이거 이리하자 이리하자 이렇게 편지해 보내 주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눈에 환합니다. 지구촌을 31바퀴나 돌았으니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나라가 내 눈에서 지워졌겠습니까?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의 그날까지는 변함없이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제법 제정 위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분들도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돼가지고 왕래가 어렵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끝이 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 해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정신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습시다. 이 바쁜 시간에 이런 말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 어쨌든 간에 하는 일 완성되도록 함께 잘합시다.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국회의 할 때에 약속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만민 앞에 약속했으니까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면 된다 그랬죠? 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나라와 가정에 한없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맞죠? 한마디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ONE! 네, 감사합니다.



윤현숙

IWPG 대표

평화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WPG 대표 윤현숙입니다. 9·18 평화 만국회의의 제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년 전 오늘 우리는, 하늘과 만민 앞에서 평화를 이룰 것을 약속했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지구촌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을 보며 더욱 평화를 염원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 병력만 해도 8만여 명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천오백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주변국들까지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의 어머니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자녀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은 전쟁의 참상을 가히 짐작케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전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족상쟁의 비극인 6·25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HWPL의 설립자이신 이만희 대표님께서도 학교를 다니시던 중 6·25전쟁의 발발로 최전방 특수부대 전투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먹을 양식 없는 전쟁터, 비오듯 쏟아지는 적탄과 아군의 포탄 속 아우성’. 이 대표님께서도 직접 전쟁을 겪어보셨기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이 대표님께서도 전쟁이 없는 평화세계를 이뤄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국경·인종·종교를 초월하여 지구를 서든한 바퀴나 돌며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현재 아흔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님의 평화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빛이 이 대표님과 함께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대표님과 HWPL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이룩한 평화의 일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선례가 되었고 분쟁으로 얼룩진 지구촌에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민다나오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제안받을 당시 민다나오는 필리핀 정부와 무슬림의 군사적 충돌이 40년 넘게 이어지며 12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5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한 아시아 최대의 유혈 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24일 HWPL 주최로 민다나오의 평화를 위한 ‘민간 평화 협정식’이 진행되었고, 민다나오 지역의 300여 시민들이 참석하고 이 대표님이 중재한 가운데 가톨릭 대주교와 이슬람 지도자인 주지사가 대표로 서명함으로써 분쟁 행위 중단과 평화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신의 뜻은 전쟁이 아닌 평화”임을 일깨우셨고, 정부도, 군대도, 교황도,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40년 분쟁을 끝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는 1월 24일을 ‘HWPL의 날’로 정하고 평화 기념비를 세워 HWPL의 평화활동과 그 기여를 인정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WPG도 평화의 이정표가 된 민다나오에 세계 최초 ‘IWPG 평화활동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여성들의 평화활동을 기념하고 고취하고자 합니다.

세계여성평화그룹은 HWPL의 한쪽 날개로서, 이 모든 평화의 일을 직접 보았고 DPCW가 평화의 답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IWPG는 HWPL 대표님의 평화의 정신을 본받아 전 세계 39억 여성의 마음을 모아 평화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다나오에서 이룬 평화와 사랑의 기적처럼, IWPG도 여성만이 할 수 있는 평화의 일을 만들어가고자 DPCW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경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IWPG는 전 세계 39억의 여성들과 하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HWPL의 이 대표님께서도 늘 ‘위 아 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외치시듯, IWPG도 지부마다 ‘온리피스 콘퍼런스’와 ‘세계여성리더 평화간담회’를 개최하여 DPCW를 소개하고 지지하는 평화의 일에 전 세계 여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코트디부아르 여성부와 공동 국가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IWPG는 유엔 대사들과 각국 여성부 장관들을 모아놓고 ‘DPCW’가 새로운 국제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한편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을 통해 전 세계 평화 시민들에게도 DPCW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IWPG는 전 세계 모든 여성이 평화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세계 여성들을 위한 평화교재 개발과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 즉 PLTE를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엔 CSW에서는 ‘여성의 지속가능한 평화교육과 행동 실천’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셋째, 평화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자 ‘플랜트 피스’(Plant Peace)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는 올해로 4년째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는 후대의 주역이 될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론, 행사에 참석하는 어머니와 교사들도 평화의 정신과 마음으로 계몽하고 순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52개국 1만2천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했으며,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IWPG는 전 세계에 100여개 지부와 450여 단체와 협력하여 평화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 CSW 기간에도 IWPG 가상박람회를 운영하여 93개국 1200여 명의 여성들과 교류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각국의 여성 대표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러시아 전쟁중지 촉구’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각국 여성대표들은 용기를 내어 전쟁을 규탄하며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제적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어가자고 IWPG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침예한 전쟁과 분쟁의 발발로 기존 국제법의 한계가 드러난 현 시점에서, 민다나오에 꽃피운 평화를 우리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우리 39억의 여성들이 모두 평화의 사자가 되어 평화의 정신을 각국 여성들이 기념하고 교육한다면, 그리고 평화와 전쟁종식을 촉구한다면, 분명 민다나오에서 꽃피운 평화의 꽃과 열매가 온 지구촌에 꽃피고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우리 모두 평화의 사자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동참하는 평화의 일은 후대에 다시없을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4년 9월, 하늘과 만민 앞에서 약속했던 처음의 그 평화의 마음 변치 말고 약속을 반드시 이룹시다. 이뤄냅시다. 위 아 윈! 감사합니다.



정영민

IPYG 부장

지구촌 평화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PYG 부장 정영민입니다. 오늘은 세계 만민 그리고 하늘과 땅 앞에서 평화를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 918 평화만국회의의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중식, 평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협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WPL은 인류의 꿈이자, 우리의 최종 목표인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후대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분쟁으로 얼룩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찾아간 HWPL 이만희 대표님께서서는 시민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후대의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까? 평화를 후대의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까?' 시민들은 한 입으로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HWPL 평화사절단이 세계를 순방할 때마다 전세계 시민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맞습니다. 평화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IPYG는 여기에 평화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이래 IPYG는 전세계의 청년들과 DPCW 실현이라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파트너십(영문:Affiliate)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중식을 통한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국제법인 DPCW 10조 38항을 제시하고, 이 선언문에 담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 청년들과 형제와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PYG는 팬데믹 이후, 미래를 꿈꾸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제공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인 이들을 돕기 위해 전세계 청년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년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YEPC는 벌써 3기째 운영되며 올 한해만 누적 59개국의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YEPC의 과목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으로써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서부터 시작하여, 육체와 정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공존의 방법을 고민하는 양성평등,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진로와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한 직업역량교육 등입니다. 평화와 인권은 이렇게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지구촌 곳곳의 청년들의 삶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 모두가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IPYG는 각 지역의 청년 공론의 장인 YEPW를 연간 44개국 4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수 년간 전세계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제일 필요한 것이 '대화'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PYG는 각 지역에서 YEPW를 개최하여 청년들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평화 실현 방안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YEPW에 참석한 한 청년은 "나는 그저 '함께 하자'라고만 말하고 싶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청년이며 의사결정자가 아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연대와 협력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의 메시지에는 IPYG가 YEPW를 운영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IPYG는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YEPW를 각국 및 국제 규모의 '청년 공론장'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희생된 생명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Nothing can repay the lost lives). IPYG와 전세계 청년들이 분쟁의 당사자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3년간,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만 극복한다면 평화가 실현될 것만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 뒤에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닌, 수 많은 분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분쟁에 의해 희생되는 이들은 대체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IPYG는 분쟁으로부터 청년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의 핵심 목표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들로부터 DPCW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IPYG는 서로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전세계 청년들과 거대한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IPYG는 200여 개가 넘는 전세계의 청년단체와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IPYG는 이들과 함께 가입서에 서명하며 '평화를 위해 연대하자. 그리고 우리 손으로 평화를 이루어 후대에는 꼭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IPYG는 앞으로도 쉽 없이 전세계 청년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앞서 말한 두 가지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팬데믹도, 어떤 분쟁도, 어떤 갈등도 우리의 걸음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촌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인류의 소원인 평화를 이뤄가는 청년들의 걸음을 계속하여 주목해주시시오. 그 누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DPCW라는 평화의 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

경과보고



강태호

HWPL 총무

전세계 평화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 총무 강태호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여러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에도, 오직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HWPL은 국경,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오직 우리의 후대에게 평화를 유산으로 전하고자 달려왔습니다. 918 평화 만국회의의 제8주년을 맞이하여 HWPL의 평화 활동, 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선언문

HWPL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공보국에 등록된 국제평화단체입니다. 국제청년평화그룹(IPYG)과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HWPL의 양 날개가 되어 각 계각층의 지도자 및 지구촌 시민사회와 더불어 범지구적인 평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HWPL의 창립일은 2013년 5월 25일입니다. 이날, 이만희 HWPL 대표님은 대한민국 서울 평화의 문 앞에서 세계평화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전쟁종식과 세계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HWPL의 평화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다나오 평화협약

2014년 1월 24일,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이 대표님은 현지 정치, 종교지도자들에게 민간차원의 평화협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민다나오는 극도로 격화된 종교 및 사회정치적 갈등으로 40년간 약 12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곳입니다.

HWPL이 중재한 민다나오 평화협정이 대표자들의 서명을 통해 체결된 이후 민다나오 현지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HWPL과 함께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1월 24일은 HWPL의 날로 지정되어 평화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념하는 평화도서관과 평화기념비가 민다나오 곳곳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필리핀에 HWPL 평화기념비는 총 7곳에 세워졌으며, 특히 2022년에는 필리핀 현지 시민들이 전쟁 무기를 녹여 평화기념비의 상징물을 만들어 내는 등 추가적으로 4곳이 세워졌습니다.

한편 종교간 화합을 이루기 위해 HWPL 종교연합사무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와 HWPL이 MOA를 체결한 이후, 필리핀 내 총 65개의 학교도 HWPL과 MOU를 체결하여 평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 활동들로, HWPL은 평화를 후대의 유산으로 남기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2014년 9월 18일, HWPL은 대한민국 서울에 각계각층 지도자와 시민들을 초청하여 9·18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70개국 4,000여 명의 지도자와 20여만 명의 시민이 참석했던 만국회의는 민간단체로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본 회의에서는 인류의 상생과 공존, 전쟁 종식과 평화실현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전직 국가원수 등 정상급 지도자들이 서명한 ‘전쟁 종식 국제법 발의안지지’ 협약과
- 각 종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명한 ‘종교대통합’ 협약이며,
- 각 단체장들은 이를 이루기 위해 촉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918 평화 만국회의는 올해로 8주년을 맞이했으며, HWPL은 전 세계 시민 앞에서 세운 이 협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지구촌 모든 평화가족들과 같이 뛰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2015년에 열린 평화 만국회의의 1주년 기념식에서 HWPL은 세계적인 국제법 권위자들로 구성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ILPC를 발족하였습니다. ILPC는 이 대표님과 함께 지구촌 모든 계층이 실천 가능한 평화 발전 방안을 담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작성하여 2016년 3월 14일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DPCW 공표 이후, 아프리카 55개국 연합 AU의 입법기구인 범아프리카의회 PAP와 중미의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DPCW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76개국 시민사회로부터 741,655건의 지지를 받는 등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실질적인 평화 실현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WPL은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평화 국제법의 제정을 위해 DPCW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순방

HWPL 이 대표님과 평화의 사자들은 범지구적 규모의 세계 평화 연대를 구축하고자 총 31차례에 걸쳐 세계 각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수많은 평화의 만남을 통해 평화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각국의 여러 인사들과 단체들이 HWPL과 연대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HWPL은 평화 자문위원 199명과 평화 홍보대사 642명을 위촉하였고, 세계 364개의 단체와 평화 MOA/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이만희 대표님은 145개국 유엔 대표부에 DPCW 10조 38항과 평화실현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기립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HWPL은 세계평화순방을 통하여 국제적인 평화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DPCW에 대한 세계 각계각층의 지지와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사무실



종교연합사무실은 2014년 평화 만국회의에서 체결된 종교대통합 협약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HWPL은 전쟁의 주된 원인인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29개국 274개소에서 종교연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서비교토론회는 현재까지 총18,840회 진행되었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총 5,209회의 토론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각국 종교지도자들의 토론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HWPL은 종교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40개의 종교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종교평화캠프, 종교연합전시회 등 174회의 종교 평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HWPL 평화교육



지구촌 시민들과 후대에 평화 가치를 전하기 위해 HWPL은 필리핀, 과테말라, 스리랑카 등과 국가적 차원의 MOA를 체결하였고, 313개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를 개발하여 73개 국가에 공급하

여 평화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HWPL의 평화교사 양성교육에는 지금까지 61개국 5,838명의 교사가 참석하였고, 이 중 809명이 정식 평화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전쟁과 분쟁이 벌어진 국가에서도 평화교육을 진행하여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청년평화그룹 IPYG

119개국 907개 단체와 연합한 세계 청년 네트워크인 IPYG는 지난 한 해 200개 이상의 단체와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그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IPYG에서 진행 중인 전세계 청년 토의 플랫폼 청년주권평화워크숍 YEPW에는 현재까지 88개국 4만 명 이상의 청년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청년 기초교육 프로그램 청년주권평화교실 YEPC는 현재까지 100회 이상 진행되어 51개국의 청년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평화 언론 네트워크 및 봉사활동

HWPL과 함께하는 언론은 팬데믹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속된



평화 활동을 앞장서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언론 네트워크는 올해 지구촌을 무대로 시행된 평화 사업에 대하여 201개국에서 총 22,219 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중의 평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언론 주최로 시민교육을 진행하였고,

언론 간 국제교류를 통한 평화의 논의를 확대하는 언론 포럼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HWPL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고 사랑으로 평화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HWPL의 평화행보는 전쟁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실현을 위해 중단 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HWPL의 행보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여러분, 바로 평화의 가족들이 함께하기에 가능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답을 가졌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이 하나 되어 함께 뛰다면, 결국 지구촌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영원히 빛날 평화를 후대에게 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모든 평화의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발제 1 수리남에서의 DPCW 지지



마리누스 비
수리남 국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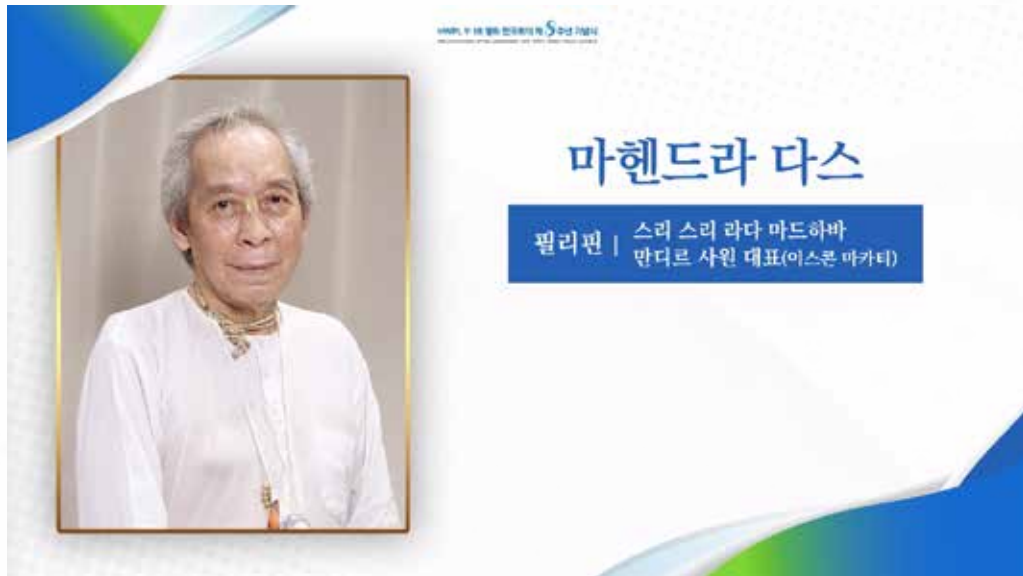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수리남 국회의장 마리누스 비입니다. 올해는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국회를 대표하여 HWPL과 이 대표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및 감독 기능을 통해 정부 기관이 평화, 안보 및 양성 평등을 증진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 없이 민주주의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에 있어 의회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적, 대의적 정치 체제는 불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 후 평화를 회복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유엔 국제의원연맹은 평화 및 국제 안보 전담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은 세계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정치적 틀을 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합니다. 청년들은 가치 있는 혁신가이자 변화의 주체이며 그들의 공헌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축하고 민주적인 통치와 전환을 지원하는 일부여야 합니다. 본 국회는 HWPL과 협력하여 전쟁종식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평화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통해 평화 문화를 전파하고 평화교육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을 지침으로 삼아 이것을 함께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축하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성과들이 많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 번영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발제 2 종교 평화 제도화의 구심점 : 종교연합사무실



마헨드라 다스

필리핀 스리 스리 라다 마드하바 만디르 사원 대표

저는 필리핀 스리 스리 라다 마드하바 만디르 사원의 대표 마헨드라 다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 아래 있지만 한 분의 신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 종교연합사무실에 일원이 되어 다양한 종교 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종교 평화 아카데미는 종교연합사무실의 산물로서, 더 심도 있는 경서 토론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자 지속 가능한 접근법입니다. 아카데미에선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고 하레 크리슈나교단을 비롯한 힌두교의 경서에 기반을 두고 철학, 관습, 신앙 및 문화에 대하여 각각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종교 평화 아카데미를 시작 할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속도를 늦추는 대신 종교 분야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두 배로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HWPL 필리핀 지부에서 포럼으로 진행되던 것을 종교 평화 아카데미 (RPA)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을 때 저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강의자와 청중은 다양한 경서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종교 평화 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각 종교에 대해 각각 1시간이 주어졌으며 각 시간 마다 종교지도자의 강의 40분, 청중과의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다른 종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3월 12일 종교 평화 아카데미 2차를 시작하게 되었고 3명의 강연자가 각각 20개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8월 13일에 종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 종교 관습의 세부적인 내용과 신앙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종교에 대한 상식 퀴즈와 게임 및 동영상에 접목하여 수업을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수업 외에도 강연자들은 목요일마다 한 시간씩 이전 수업에서 나왔던 질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코란과 성경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평화 아카데미의 준비 계획을 시작할 때의 흥분을 아직도 생

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강연자는 교육이 평화 달성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범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강연자는 자신과 가족,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 개인 SNS 계정에 종교 평화 아카데미 배너를 올렸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들을 종교 평화 아카데미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이 배너를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의 그룹 채팅창에도 공유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원의 전 신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알리고 초대했습니다.

1차 종교 평화 아카데미에는 기독교 목사님들과 하레 크리슈나 신도들 그리고 무슬림 형제자매를 포함한 총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2차 종교 평화 아카데미에는 저희 대학 졸업생을 포함하여 100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종교 평화 아카데미(RPA)를 통해 만물의 근본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신에 대한 기본 개념이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며 다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전지전능한 최고의 신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에도 존재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은 알라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라, 야훼, 여호와, 부처, 엘로힘, 크리슈나 등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으로 같은 신을 믿는다는 것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주를 알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선의의 종교는 삶의 가장 높은 목표가 신을 알고 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경서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깨달음을 더 넓히고 다른 종교의 형제자매들을 포용하게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질문은 종교 평화 아카데미(RPA)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강의자들은 각자의 경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거의 동일하며 이에 도달하는 방법은 각자의 선과 악에 달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같은 중재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경서에 구원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른 경서들을 탐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는 데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경서에 대한 비교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이 기회를 통해 종교 평화 아카데미(RPA)에 참여하는 다른 종교의 신도들과 우리 신도들 간에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었고 종교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 열정적으로 참석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제시된 수업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종교 평화 아카데미(RPA)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도구 및 자료 교환에 관해서 다른 종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종교의 문화와 신앙 그리고 관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더 많은 교류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하레 크리스나 신도들은 현재 HWPL과 함께 청소년 캠프, 자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평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 평화 아카데미(RPA)의 목표는 경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신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경서의 가르침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종교 평화 아카데미(RPA)는 경서를 통해 신을 깊이 이해하는 접근 방식을 제도화했습니다. 종교 평화 아카데미(RPA)는 머지않아 경서에 따라 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도시에 종교연합사무실이 계속해서 설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레 크리스나 하레 크리스나, 크리스나 크리스나 하레 하레 하레 라마 하레 라마, 라마 라마 하레 하레, 신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평화와 신의 사랑을 받

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레 크리슈나!

발제 3 국가시민교육과정 내 HWPL 평화교육을 통한 도미니카 평화 문화 확산



옥타비아 알프레드
도미니카 연방 교육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옥타비아 알프레드입니다. 저는 카사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교육, 인사 기획, 직업 훈련 및 국가 우수성 장관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미니카 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된 HWPL 평화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WPL 평화교육은 건강과 가정생활 과목의 일환으로 사회 교과에 통합되었으며, 단독 과목으로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개념을 따라 HWPL 평화교육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도미니카 학생들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 부모님, 선생님들에게까지도 도전 과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교육과정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교육과정을 교과 과정으로 유지하겠고, 이는 학교에 오랫동안 존재할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게 되면, 특정한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치원 수준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중학교 수준에서 아무것도 고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7, 8, 9, 10세 일 때 바로잡을 수 있다면, 아이들이 14 세가 되었을 때 고칠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정말 행복합니다. HWPL 평화교육은 시민 교육과정에 통합되었습니다. 시민 교육과정은 준비되었으며, 우리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학년도가 되면 시범교육을 선보이고, 그 다음 해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HWPL(평화교육)은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 교육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HWPL이 도미니카에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온전하게 시행될 때, 이 교육 과정의 결실을 우리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도미니카는 HWPL의 결실을 반드시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도미니카가 이 교육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평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 문화는 통상적으로 평화롭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미니카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국가별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 기념식 행사 목록

번호	행사일	국가	도시	행사명	참석 인원
1	2022.9.11	방글라데시	চিতা공	청년주권평화워크숍	22
2	2022.9.14	미국	뉴욕	평화의 문화 :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 - 세계 평화의 날 기념행사	100
3	2022.9.17	미국	시카고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101
4	2022.9.18	베냉	포르토노보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37
5	2022.9.18	미국	뉴욕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21
6	2022.9.18	대한민국	인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5
7	2022.9.19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60
8	2022.9.19	스리랑카	갈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35
9	2022.9.20	파키스탄, 몰디브	이슬라마바드, 말레	제도적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	17
10	2022.9.20	아프가니스탄	발흐	평화그림 그리기 대회	100
11	2022.9.22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67
12	2022.9.22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모로코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123
13	2022.9.23	미국	워싱턴디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18
14	2022.9.23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튀니지,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예멘, 오만, 이집트	바그다드, 암만, 두바이, 사이다, 튀니스, 아디스아바바, 사나, 무스카트, 카이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	49

번호	행사일	국가	도시	행사명	참석 인원
15	2022.9.24	미국	풀러톤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610
16	2022.9.24	탄자니아	다르에스 살 람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117
17	2022.9.24	호주	멜버른	하세광 평화 버스 투어	53
18	2022.9.24	호주	시드니	에스 폴 피스	44
19	2022.9.24	호주	브리즈번	종교연합사무실	13
20	2022.9.24	동티모르	딜리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44
21	2022.9.24	카메룬	야운데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63
22	2022.9.24	스리랑카	콜롬보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40
23	2022.9.24	뉴질랜드	오클랜드	918 평화만국회의 8주년 기 념식 - 평화의 제도화: 우리가 원하는 뉴질랜드 건설	76
24	2022.9.24	영국	런던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358
25	2022.9.24	스위스	취리히	HWPL 918 8주년 기념식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위한 초석”	199
26	2022.9.24	독일	프랑크푸르 트	제 8주년만국회의기념및독일 프랑크푸르트등록기념식	92
27	2022.9.24	프랑스	파리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122
28	2022.9.24	미국	애틀랜타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97
29	2022.9.24	마다가스카 르	안타나나리 보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00
30	2022.9.24	잠비아	루사카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06
31	2022.9.24	독일 루마니아 몽골	베를린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05
32	2022.9.24	일본	도쿄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71
33	2022.9.24	한국	대전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50

번호	행사일	국가	도시	행사명	참석 인원
34	2022.9.24	우간다	캄팔라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1932
35	2022.9.25	인도	델리	인도 세계평화를 위한 시와 편지 낭독회	18
36	2022.9.25	인도	하이데라바 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134
37	2022.9.25	미국	텍사스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54
38	2022.9.25	콩고민주공 화국	킨샤사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42
39	2022.9.25	튀르키예	이스탄불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51
40	2022.9.25	케냐	나이로비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92
41	2022.9.25	미국	샌프란시스 코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50
42	2022.9.23 ~25	체코	프라하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	172
43	2022.9.25	일본	오사카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8주년 기념식	299







책자명 :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8주년 기념식 결과보고서

제도적 평화 :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

발간처 :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발간일 : 2022.9.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제 **S** 주년 기념식

결과 보고서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

 HWPL |  TPYC |  IWPG